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진로활동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I. 통계로 본 2013년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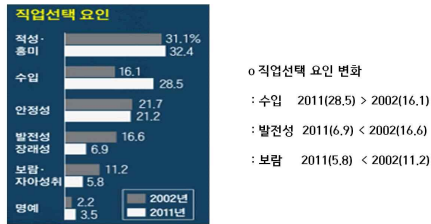


청소년의 현재를 잘 설명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눈을 또렷하게 뜨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청소년과 아무 것도 하기 싫다는 눈 풀린 청소년. 극단적인 대비이지만 2013년을 살아가는 부정할 수 없는 청소년 생활의 단면입니다.

2013년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2012년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장래희망이 없다는 청소년 비율이 중학생 24.4%, 고등학생 32.3%로 나타나고, 고등학교 계열선택의 이유는 특별한 이유없다 29.2%, 성적에 따라 19.2%, 대학졸업자의 진로의 경우 '진로를 정하지 못했으며 무엇을 잘 할지 모르겠다 61.5%'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이 없는 아이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3년 청소년 통계, '꿈이 없는 아이들'

십년 전의 청소년 생활과 비교한 통계(표1 참조)도 눈에 띕니다. 직업선택 요인을 물었을 때, 수입을 우선시하고 발전성과 보람 요인이 줄어든 모습을 봅니다. 안정성을 좇는



자료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 통계 - 최근 10년간 청소년 생활의식 및 변화 추이

아이들 모습이 보입니다.

실업률 통계(표2)는 청소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무려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이중 3/2 이상이 대졸이상 학력층으로 나타나 진로직업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

통계를 통해서 보면 꿈이 없는 아이들, 안정된 수입을 좇는 직업선택 경향, 높아져가는 실업률을 놓고 보면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됩니다.

II. 진로교육 변화 따라잡기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 진로교육에는 아직도 얼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기 선택주의', 소질과 적성을 찾으면 된다는 '발견주의'와 '검사 만능주의', 현재 직업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현실 안주주의',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문제는 진로교육만 잘하면 된다는 '진로만능주의' 등 극복해야 할 진로교육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미석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진로교육은 오래된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과정'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진로교육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로 지형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예로 짝짓기형 진로선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키우는 일을 진로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애적 진로교육으로 전환 필요

특히 그 변화는 새 정부 들어서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2016년 자율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창의적인 인재육성 방안(꿈-끼, 융합-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 발표, 역량기반의 채용문화 확산, 탈산업사회에 따른 다양한 진로경로 확대, 진로교육 인프라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진로체험 서비스 필요, 생애 발달단계를 고려한 경력개발로 진로교육 접근 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진로개발 모형에서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 키우기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남 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은 역량 개발 중심의 진로개발 활동을 제시하며, 선진학 후취업이라는 단일한 진로경로가 선취업 - 후진학, 취업-진학-취업, 일과 학습 병행 등 진로경로가 다양하고, 모의 창업훈련이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직업매칭에서 진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진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교육으로 프로그램 전환으로, 특히 진학과 취업 위주에서 전 생애적 진로교육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II.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진로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며, 올바른 것을 실행하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을 뜻합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활용한 진로교육은 네 가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사회이슈를 비즈니스 원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태도와 접근방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는 체험(learning by doing)위주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로 소셜벤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진로 롤모델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아쇼카재단의 창립자 빌드레이튼은 세상변화를 리드하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활동이자 사회적기술로 공감, 팀워크, 리더십 개발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12~20세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유스벤처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 만명의 젊은이들이 창업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동아리활동 및 포럼, 윤리적소비캠페인, 소셜아이디어공모전, 재능나눔 활동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단위의 청소년 주도 진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IV. 진로활동과 교육 마을만들기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일본의 커리어스타트워크, 핀란드의 직업체험기간 운영 등 다른나라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의 현장기반 직접체험 교육 활성화,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진로활동가,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반이 탄탄하게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 출발점,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 강화

사회적 기업이 정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청소년기 발달에 도움을 주는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전통적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관계를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진로활동은 호혜성, 타인에 대한 신뢰,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줍니다.

특히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안전망으로 더욱 필요하고, 진로인프라 구축이 학교안팎 자원과 마을(지역사회) 거점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을 진로교육 협력 활동 사례

1. 성미산 마을의 성미산학교
 - 일머리 실험실이 '眞路'다
 -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들과 관계를 맺으며 10대가 할 일을 한다.
 - 성미산학교 작은카페 미니샵 정규운영시간이 아닌 아침과 방과후, 주말에 새로운 메뉴개발, 되살림가게 저녁에 운영하기, 생형 장바구니 배달 알바, 성미산 마을투어 프로그램 개설 외

- 진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보다 지금 마을 혹은 자기 주변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 동료들과 실험하는 것
- 막연한 진로준비가 아닌 '경험 실험 트랙'이 필요

2. 청소년 시설과 마을 협력 활동

- 청소년 자립 대표 모델을 만든 하자센터
- 청소년시설 일부를 청소년들이 운영한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영셰프' 프로젝트. 청소년들이 카페와 식당운영으로 학습과 일을 배운다.
- 연금술사프로젝트로 진행된 성미산 마을 도시락배달 전문점 '소풍가는 고양이', 신촌 컵케이크전문점 '달콤한 꼬끼리'. 교사가 매니저로 창업한 청소년 자립 가게 대표 모델.
- 청소년들은 공동창업주 운영, 하자센터는 교사 인건비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공간기금 지원, 마을은 식재료와 유통망 후원으로 창업지원한 협력 프로젝트
-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협동조합형 기업 집적단지,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작업 진행, 특성화 전문계고 진로개발 활동 시행 중

3. 대안교육과 공교육, 사회적 기업의 협력

- 긴호흡으로 만나는 세상 읽기를 운영한 공간 민들레
- '길 위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공교육, 위탁형 대안학교, 공간민들레서 동시 진행한 7개월에 걸친 긴호흡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 직업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한 진로교육
- 사람책 커뮤니티 구성, 나찾기 캠프, 세상 보기, 인턴십(모의면접, 일주일 인턴), 발표회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
- 사회적기업 열린 탐방 진행 (문화예술공유기 다금, 아름다운거퍼 제조공장, 문화로놀이짱,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외)
- 모든 교육이 진로교육이고, 모든 일상이 진로다

3.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마을 진로배움터 만들기

- 직접체험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활동
- 세상을 밝히는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철학을 배우고, 팀 활동, 설립 아이템 조사, 견학, 계획서 작성, 발표 과정을 거치는 청소년 단기 모의창업활동 진행
-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아 노리단, 유유자적살롱, 이야기꾼의 책공연, 오요리의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현장 견학 및 만남 진행
- 지역 혁신기업을 찾아가는 진로공정여행 운영
- 쉼터·대안학교 등 소외 청소년 창업워크숍 개최,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견학, 발표 등 청소년 자립 역량 개발
- 카페 소리울을 통한 자립훈련 기관 역할, 자조모임 공간 제공, 바리스타 직업 체험 외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등 청소년 윤리적소비 교육, 청소년축제 진행

V. 진로활동의 과제

① 모든 일상과 현장 발굴이 진로교육 터전

- 직접체험 진로교육 현장을 열어가
 - 청년 사회적기업가 탐방서 배운다 (위즈돔, 오요리, 빅워크, 공감만세 외)
 - 기업가정신, 현장 일머리, 협업, 재능나눔 외
- 적정 경험이 필요하다
 - 인지 중심에서 인성체험 중심으로
- 쉽이 있는 교육공간을 활용하자
 -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학교, 방과후학교, 마을공방 외

② 삶 속에서 사회적경제 실천 캠페인

- 윤리적 소비 캠페인(생산에서 유통, 소비와 사용, 이후의 처리와 재생에서 사회적 영향 고려, 배려의 마음 전달)
 - 경제 : 지역화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제품과 서비스 이용, 1주주 1조합원 되기 외
 - 문화 : 공정여행, 마을축제 외
 - 사회 : 슬로시티 운동(캔들나이트) 외
- 공유경제(자신이 소유한 기술과 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식나눔, 카셰어링, 코업, 집밥, 공유서가 운동 외

③ 교육 마을 만들기 '공유지점' 중요

- 2011년 월스트리트 주코티 공원 운동 (Occupy Wall Street)
 -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재현
- 2013년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현상 보기
- 해결사가 될 것인가? 진로동력을 만들 것인가?
('내가 해결할게' 와 '어떻게 해결하죠?')
- 학교밖 교육·청소년 기관 연계,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참여, 지역 진로활동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향

④ 지역 진로커뮤니티 구성 '사람 만들기'

- 진로활동을 내·외부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선순위 찾기)
- 의제보다 접촉면 만들기가 중요(마주박야 어깨건다, 진로 커뮤니티를 넓힌다).
- 사업보다 사람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학교내 활동주체 세우기, 청소년과 청년세대 공감 활동, 연계 기업 네트워크).
- 단체 보다 살아있는 모임을 엮는다(느슨한 관계망).